

“당 나가라는 최후통첩” vs “지도부 흔들기 度 넘어”

친노-비노 계파 갈등 폭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제안이 친노와 비노 진영의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계파 갈등을 폭발시키고 있다.

혁신을 명분으로 재신임을 묻고 당의 단합을 이끌겠다는 문 대표의 제안이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면서 야권 분열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의 제안이 “사실상 친노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최후 통첩이자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주류 진영에서는 “총선 공천권을 놓고 비주류 진영의 지도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으며

“당내 신뢰구조 완전 붕괴”

재신임 받아도 분열 불가피

“한심하다” 호남민심 냉랭

이참에 이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의 재신임 결과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로 당 내부의 신뢰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야권이 결집해도 정권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을 거듭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의 원심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신임 여부=일단 문 대표의 재신임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중앙위의 인적 구성에서 주류 비중이 높은데다 혁신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비주류의 결집력이 약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재신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표의 재신임 지지가 낮을 수 있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혁신을 매개로 재

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비주류 진영에서는 당직인 대표직 재신임은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분열 가속=주류 진영의 혁신과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은 당의 단결과 결집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일각에서 이해찬 전 대표 등 친노 원로들의 총선 불출마를 통한 백의중군론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반응이다.

문 대표가 재신임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함께 당의 기강을 집중 거론한 점에서 비주류 진영에서는 “사실상 친노 정당 만들 기머 협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에 대해 “사실상 친노에게 몽치라는 총동원령”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전남도당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문제의 핵심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며 민심에 승복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중도 성향 지역 의원들도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보다는 수가 뻥히 보이는 하책”이라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내외에서는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도 당내 신뢰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 민심은?=문 대표의 재신임 제

안이 호남 민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이 당내 단합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에 있어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노 주류 진영의 혁신과 희생이 없다는 점도 호남 민심을 움직이는 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이번 재신임 상황을 제대로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정치적 리더십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번 재신임 논란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문재인 대표 재신임 절차 돌입

“추석 전 모든 절차 마무리”

여론조사·당원투표 등

재신임 방법 놓고 진통 예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수순 밭기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의 재신임 절차가 늦춰질수록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대표가 제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혼합한 방식에 대해 당내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재신임 방법을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당내 핵심 관계자는 “재신임 절차를 오래 끌어서 좋을 일이 없다”며 “추석 연휴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재

신임 투표를 마치고 안정된 당의 모습을 연출, 추석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재신임 방법을 놓고 당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오는 11~13일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를 실시해 밀봉한 뒤, 오는 16일 중앙위에서의 혁신안 통과 여부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중앙위 이후인 18~20일 여론조사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 주류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다 혁신안을 거부할 경우, 당이 파국에 직면할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류 측의 노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제 당무위에

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앙위에서도 혁신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신임의 2차 관문으로서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의 경우, 세부 절차에 대한 비주류 측의 이의제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론조사의 경우, 휴대전화로 하느냐, 집전화로 하느냐,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직인 대표 재신임에 국민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될 경우 추석 전에 모든 재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 불 건 나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재신임 방법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모아본 다음에 적절한 방식을 확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혁신안 실천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늦어도 12월말~내년 1월중 창당”

“새정치와 합당 결코 없을 것”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9일 밤 신당 창당 계획과 관련, “내년 총선 전, 늦어도 12월말이나 1월 신당이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이 신당 창당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의원은 이날 경희대 청운관에서 열린 ‘한국의 미래와 한국정치의 재구성’ 강연에서 “보체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역산해보면 된다. 당을 만드는 데 한 달이면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제가 꿈꾸는 건 먼 미래

가 아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하려고 한다”며 “대선이 2년 3개월 정도 남았으니가 짧은 시간에 위력적인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창당 후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과 합당할 일은 없다. 제가 거기에 복귀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대통령론을 제시하며 천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다.

천 의원은 창당 준비 과정에 대해 “기성정치인 누구와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라며 “제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같이 상상하고 패기 있는 사람을 찾을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어떤 신당을 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만들지 제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문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은 가망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신임’ 불뚱에 여야 대표회담 제동

김무성-문재인 추석전 만남 불투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당 대표직 재신임 투표 제안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원전국민경선제) 도입에 관한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문 대표도 이에 원칙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르면 추석연휴 전에 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됐으나 ‘돌발변수’의 출현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0일 여야 대표 회

담과 관련, “문 대표가 직(職)을 거는 바람에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표 회담이 늦어지면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 논의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문 대표가 당 내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 데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